

# 지역특화 관점에서 본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 분석과 운영 전략 연구\*

## Demand Analysis and Operational Strategies for Reading Culture Programs in Cheonan's Public Libraries: A Place-Based Specialization Perspective

곽 승 진 (Seung-Jin Kwak)\*\* 강 봉 숙 (Bong-Suk Kang)\*\*\*

강 지 혜 (Jihe Kang)\*\*\*\* 노 영 희 (Younghee Noh)\*\*\*\*\*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
| 2. 선행연구        | 5. 논의      |
|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6.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는 문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시민 수요를 분석하고 지역특화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들의 평소 독서 관심도는 높으나 프로그램 참여율은 절반 수준이었으며, 미참여의 주된 원인은 시간대 불일치와 정보 부족으로 나타나 접근성 및 홍보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매우 높은 만족도와 도서 대출 연계 효과를 보였으며, 작가 강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지만 실제 필요도는 독서토론과 글쓰기, 인문학 등에 집중되어 있어 단계별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관순 등 지역 역사·상징자원 연계, 권역별 분산 및 하이브리드 운영, 학교 및 취약계층 연계,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mand for reading programs in Cheonan's public libraries to propose local-specialized strategies. Despite a high interest in reading, participation is evenly split due to schedule conflicts and information gaps, emphasizing the need for improved accessibility and promotion. Participants reported high satisfaction and increased book borrowing afterward. While author talks are widely preferred, deeper needs for discussion, writing, and humanities require a staged program portfolio. Consequently,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linking programs with local historical resources, implementing area-based hybrid delivery, fostering school and vulnerable-group linkages, and establishing participatory governance.

키워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분석, 지역특화, 운영전략, 하이브리드 전달체계, 거버넌스  
Public Libraries, Reading Culture Programs, Demand Analysis, Place-based Specialization, Operational Strategies, Hybrid Delivery, Governance

\* 이 연구는 2025년 천안시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공동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jhkang@dongduk.ac.kr / ISNI 0000 0004 6815 0603) (공동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337-363,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337>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문화행사의 제공을 넘어 시민의 독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학습·돌봄·치유를 연결하는 핵심 공공서비스로 기능한다. 특히 독서가 취미·지식 습득·자기계발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의 자원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접근 보장을 넘어 독서 경험을 '참여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설계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매체 기반의 다중 독서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는 참여 방식과 접근 경로에서 더 높은 유연성을 기대하며, 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콘텐츠 자체를 넘어 운영 시간, 정보 제공, 참여 부담,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 등 전달체계 전반을 포함한 정책 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지속성과 확산이 제한되고, 생활권·계층에 따라 이용 기회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램의 '내용'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생활시간 구조와 운영 시간대의 불일치, 정보 접근 채널의 편중, 참여 방식의 획일화 등 구조적 요인의 누적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넘어, 시민이 어떤 조건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참여로 전환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운영 전략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특화' 관점은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시의 정체성과 생활세계에 접속

시키는 핵심 설계 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 특화는 단지 주제를 지역 소재로 치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상징 자원과 생활권 자원을 독서·학습·체험·관계 형성의 경험으로 재구성하고, 도서관 네트워크(거점-분관)와 연계 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로 구현하는 전략이다. 천안시는 교통·교육·산업 기능이 결합된 도시적 특성과 더불어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 역사 등 상징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역 정체성 기반의 독서문화콘텐츠를 설계·확산할 잠재력이 크다. 동시에 도심과 외곽 생활권의 구조적 차이와 디지털 정보 접근 격차는 프로그램 참여를 제약하거나 수요를 왜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므로, 지역특화 전략은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접근성·형평성을 포함한 전달체계 설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시민의 독서 실태와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향후 참여 의향, 그리고 천안의 지역자원과 연계된 특화 프로그램 수용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략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여 전환의 핵심 조건(시간대, 정보 접근, 참여 부담, 운영 방식)을 실증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천안형 지역특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우선순위와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 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구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기술적 논의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지역사회 독서정책·도서관 중장기 계획·이용자 수요 분석을 결합한 정책지향적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생활문화 기반이자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화서비스의 거점이라는 방향이 강조되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도서관 운영전략(인력·공간·장서·네트워크)과 연동되는 정책 패키지'로 재정의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국내 선행연구의 한 축은 프로그램의 현황 진단과 활성화 조건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체성 확립,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대상 전문화, 사서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한 연구는 이후 독서문화프로그램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운영요건 프레임'을 제공했다(황금숙 외, 2008). 이 축은 최근 국가도서관통계 기반의 정량 자료를 활용해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분석하고, 독서 활동 데이터의 확보·공유, 기획·운영 요소 간 관계 분석, 평가지표 개선과 질적 평가 확산, 현장 의견 수렴 창구 마련 등 '정책 실행 가능성이 높은 처방'을 제시하는 연구로 고도화되었다(심효정, 2023).

다른 한 축은 이용자 관점의 수요·참여·효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설계 논리를 정교화해 왔다.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독서활동이 종이책 중심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참여 저해 요인으로 시간 부족과 정보 부족이 핵심적으로 제시된 점에서, 프로그램 편성(시간대의 유연성)과 홍보(채널·메시지·도

달 전략)가 참여율을 좌우하는 결정변수임을 확인했다(신영지 외, 2024). 동시에 만족이 이용 의도 및 추천 의도에 유의하게 작동한다는 실증 연구는, 프로그램 성과를 '참여 실적'에만 두지 않고 경험의 질(만족·관계품질·재이용)을 포함한 성과지표로 확장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Noh & Chang, 2020).

최근 연구는 '생애주기'와 '지역성'을 결합한 독서정책·프로그램의 설계 필요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독서정책을 도출한 연구는 지역 주민·도서관 직원·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독서가치 공유, 시민 참여형 문화플랫폼 강화, 독서문화진흥 기반 고도화, 독서대전의 체계적 운영 등 다층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정책 생태계(행사·플랫폼·거버넌스·기반조성)와 결합해야 지속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심효정, 조상은, 2024). 또한 대표도서관(거점도서관) 구축 맥락에서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는 성인·어린이·가족 프로그램 등 인구·생활 특성을 반영한 이용자 기반 프로그램 강화,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공유, 디지털/메이커 기능의 결합 등 '생애주기 기반 포트폴리오'가 운영전략으로 제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곽승진 외, 2020).

천안시 사례와 직접 연결되는 선행연구는 '계획 수립'과 '수요 기반 프로그램 확충'을 동일한 정책 프레임 안에서 다룬다. 제4차 국가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방향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천안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제안한 연구는, 환경 진단과 시민·전문가·직원 의견조사를 결합하고, 사회적 포용,

차별 없는 환경, 전문성 강화,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의 추진전략 아래 생애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 환경 조성, 문화·예술·체험 서비스 확대 등 실행과제를 구체화했다(곽승진 외, 2024). 이 접근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대상(생애주기) × 콘텐츠(독서·문화·체험) × 전달(공간·아웃리치·협력) × 지속(조직·인력·재원)'의 결합체로 모델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 격차와 지역 특성은 프로그램 수요의 크기뿐 아니라 '수요의 형태'를 바꾸는 구조 변수로 작동한다. 충청남도 공공도서관의 현황 및 격차를 분석한 연구는 동일 광역권 내부에서도 인프라·서비스 접근의 불균등이 존재함을 보여주며(오선경, 2022), 이는 천안시와 같이 도시·생활권 내부 이질성이 큰 지역에서 '동일 프로그램의 획일적 복제'가 아니라 생활권별·생애주기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도서관을 지역사회 소통·교류의 중심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인을 도출한 연구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독서교육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매개 장치로 기능할 때 지역적 의미와 정책 정당성이 강화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보강한다(Noh et al., 2023). 나아가 특화 전략을 '장서/프로그램의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인력·거버넌스·재원의 지속가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역 특화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운영 설계(전담 인력, 네트워크 거버넌스, 재원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o et al., 2025).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정책적 타당성은 '효과'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

라진다.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된 REBT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지·정서·행동 및 또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김명자, 박주현, 2023),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학습성취를 넘어 정서·관계·사회성 등 삶의 질 지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병영도서관의 독서 활성화 방안을 다룬 연구는(장윤금 외, 2018) 독서문화가 특정 집단·특수 환경에서 형성·유지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운영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비교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1) 생애주기별 수요의 차이를 정교하게 식별하고, (2) 지역 문화자원·생활권 환경과 연결되는 콘텐츠 아키텍처를 제시하며, (3) 참여저해 요인(시간·정보·접근성)을 해소하는 전달 전략을 설계하고, (4) 중장기 계획·정책과제·성과지표와 연동되는 지속가능 운영모형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현황 분석-정책제안' 흐름을 '수요-기반 모델 검증' 단계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3.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요 특성(특히 생애주기별 차이)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역특화·정책설계로 연결하기 위해 설문조사(양적)와 전문가 의견수렴(질적)을 결합한 혼합연구 설계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관련 선행연구와 국가·지자체의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영역

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천안시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독서 실태, 도서관 이용 행태,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만족, 향후 수요, 정책지원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 결과에서 확인된 수요의 맥락을 보완하고 지역특화 전략을 정교화하기 위해,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한 서면 기반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시민 설문은 천안시 거주자 및 천안시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특정 연령대나 직업군에 응답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령, 직업, 생활권 분포를 고려하여 응답자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엄밀한 의미의 확률적 층화표집이라기보다는, 정책 수요 분석에 필요한 주요 응답자 특성을 고려한 할당형 온라인 설문조사에 가깝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천안시민 전체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와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해석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직업·생활권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 적용 원칙을 두어, 특정 집단 편중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설계에 필요한 생활권 기반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설계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먼저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비참여, 만족도, 수요의 전반적 분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주기(연령대 등)와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집단별 수요와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편 개방형 응답과 전문

가 서면 응답 자료는 주제분석(코딩-범주화-통합)을 적용하여 정책 의제와 실행 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지역특화 운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3.2 연구질문

본 연구는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식조사의 조사 목적과 문항 체계를 토대로, 천안형 지역특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요 구조와 참여·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운영 전략 및 정책 설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 RQ1. 천안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실태와 독서 관련 기초 수요는 어떠한가?
- RQ2. 천안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행태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 RQ3.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목적 달성도, 재참여 의향 및 도서 이용 연계 효과는 어떠한가?
- RQ4.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선호 유형, 지역특화 프로그램 수요는 어떠한가, 이를 바탕으로 어떤 운영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가?

다만, 성별·연령·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각 연구질문 분석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 3.3 설문설계

본 설문은 단일 문항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 흐름에 기반한 단계적 측정체계를 채택하였다. 이는 수요 형성의 기초 조건이 실제 서비스 접점 및 참여 성과를 거쳐 향후 운영 전략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설문 구조는 (1) 배경특성(세분화 변수) → (2) 독서 실태(수요의 기초) → (3) 도서관 이용(서비스 접점) → (4) 프로그램 경험(참여·만족·효과) → (5) 수요·정책 선호(설계 전환)의 5개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단계적 설계는 개인의 생애주기적 조건(시간 자원, 가족·돌봄, 학습·일, 이동성, 정보접근 방식)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결합하여 최종 수요를 형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분석은 “누가(생애주기·특성) 어떤 조건에서(접근·정보·시간) 참여로 전환하며(참여경험), 어떤 성과를 체감하고(만족·대출연계),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로 요구하는지(필요도·정책지원·지역특화)”의 연속적 인과 흐름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콘텐츠 ‘내용’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홍보 채널 개선을 아우르는 ‘전달체계’ 고도화 측면의 거시적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각 영역별 세부 측정 항목과 연구 질문(RQ) 간의 연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사항은 생애주기별 비교를 위한 핵심 분류 기준으로 연구질문 전반의 집단 비교에 사용된다. 둘째, 독서 실태파악은 독서 동기·장애·독서량·획득 경로·선호 분야를 통해 RQ1의 기

초 수요 구조를 규명한다. 셋째, 공공도서관 이용현황은 이용 도서관·빈도·목적을 측정하여 RQ2의 이용 맥락을 설명한다. 넷째, 독서프로그램 경험현황은 참여 여부, 정보 획득 경로, 참여 유형·목적, 목적 달성, 만족 및 재참여, 대출 연계를 포함해 RQ2·RQ3의 핵심 변인을 포괄한다. 다섯째, 독서프로그램 수요조사는 선호 유형, 프로그램별 개설 필요도, 개설 시기, 정책지원 필요, 시정 연계, 지역 키워드와 지역 특화 참여 의향, 개선사항을 통해 RQ4·RQ5를 정책 설계 언어(우선순위·지원체계·지역특화 전략)로 전환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문항 및 구성은 <표 1>과 같다.

## 4. 분석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는 여성 88.24%, 남성 11.76%로 여성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연령은 30대(33.33%)·40대(27.45%)·20대(23.53%)가 중심으로 20~40대가 84.31%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직장인(58.82%)이 과반이었고, 주부(19.61%), 학생(13.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구성은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핵심 수요가 30~40대 직장인·여성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정책적으로는 야간·주말 및 온라인/하이브리드 운영 등 시간 제약을 완화하는 설계가 우선 요구됨을 시사한다. 동시에 청소년·고령층 및 남성 집단의 응답이 부족하므로, 향후에는 표집·홍보를 보완해 취약 연령·성별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생애주기·직업 특성

〈표 1〉 설문구조도

구분	주요 문항	분석목적	대응 연구질문	문항수
일반사항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응답자 특성 파악 및 집단별 비교를 위한 기초 변수 확보	RQ1~RQ4 공통	4
독서 실태파악	평소 독서 여부, 독서 이유, 비독서 이유, 월평균 독서량, 책을 구하는 경로, 선호 주제 분야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요가 형성되는 독서 기반과 장애 요인 파악	RQ1	6
공공도서관 이용현황	주 이용 도서관, 이용 빈도, 이용 목적	도서관 이용 경험과 프로그램 수요의 관계 파악	RQ2	3
독서프로그램 경험현황	참여 여부, 정보 획득 경로, 참여 유형, 참여 목적, 목적 달성도, 만족도, 만족 이유, 재참여 의향, 참여 후 대출 경험, 비참여 이유	프로그램 참여 특성, 성과 인식, 비참여 요인 파악	RQ2, RQ3	11
독서프로그램 수요조사	향후 참여 의향, 참여 희망 유형, 프로그램별 필요도, 지역특화 프로그램 참여 의향, 희망 콘텐츠, 중점 운영 방향, 선호 시기, 정책지원 필요성, 연계 필요 시점, 개선사항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방향과 지역특화 운영 전략 도출	RQ4	10
기타의견	자유 의견	정량 분석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보완 의견 수렴	RQ4	1
계				34

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표 2〉 참조).

〈표 2〉 응답자의 일반사항

구분	설문 항목	응답자 수(비율)
성별	남성	46명(11.76%)
	여성	341명(88.24%)
	기타	0명(0.00%)
연령	10대	0명(0.00%)
	20대	91명(23.53%)
	30대	129명(33.33%)
	40대	106명(27.45%)
	50대	61명(15.69%)
	60대 이상	0명(0.00%)
직업	학생	53명(13.73%)
	직장인	228명(58.82%)
	자영업	8명(1.96%)
	주부	76명(19.61%)
	퇴직자	0명(0.00%)
	기타	22명(5.88%)

직업 기타의견: 프리랜서, 사서

## 4.2 독서 실태에 조사 분석결과

### 4.2.1 평소 독서 여부

평소 독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9% 이상이 독서 친화적인 잠재 수요층으로 나타난 반면, 19.6%는 저독서층으로 확인되어 집단 내 독서 수준의 편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심화형 참여와 진입 장벽 완화를 동시 수용하는 이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기존 독서층에게는 주제별 독서토론, 독서클럽, 큐레이션 등 고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참여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저독서층에게는 초기 독서경험 지원, 동기부여 캠페인, 단기 실천형 프로그램(하루 10분 읽기) 등 입문형 설계를 배치하여 독서 참여를 단계적으로 견인해야 한다(〈표 3〉 참조).

### 4.2.2 독서량 및 독서 성향 조사 결과

독서 동기는 취미(29.63%), 지식 습득(24.69%),

〈표 3〉 평소 독서 여부

평소 독서 여부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거의 읽지 않는다	46명(11.76%)	2.941	0.947
읽지 않는다	30명(7.84%)		
읽는 편이다	228명(58.82%)		
자주 읽는다	68명(17.65%)		
매우 자주 읽는다	15명(3.92%)		

자기계발,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다층적이므로 정서 테라피부터 실용 지식 큐레이션까지 동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반면 비독서의 핵심 원인은 시간 부족(72.73%)이므로, 기존의 장기 참여 모델에서 벗어나 마이크로 러닝 및 디지털 플랫폼 연계 등 시공간 제약을 낮추는 접근성 고도화가 요구된다. 월평균 독서량은 2~3권(46.34%)의 중간 독서층을 중심으로 분절적 구조를 띠고 있어, 가벼운 스낵 콘텐츠부터 심화 세미나까지 스펙트럼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하다. 도서 획득은 공공도서관(50.00%)이 지배적이나 인터넷서점 등 대안 채널과 결합 중이므로, 빅데이터 추천 및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급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선호 분야는 문학(43.84%)과 자기계발(17.81%) 등 인문·교양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력 콘텐츠로 안정화하되, 과학·기술 등 취약 분야는 대상별 특화 목적에 맞춰 선별적으로 보완 기획해야 한다(〈표 4〉 참조).

항목	세부 질문	응답자 수(비율)
책을 읽지 않는 이유	취미	115명(29.63%)
	기타	9명(2.47%)
	시간 부족	282명(72.73%)
	흥미 없음	70명(18.18%)
한 달 평균 독서량	자료 접근 어려움	35명(9.09%)
	1권 이하	104명(26.83%)
	2~3권	179명(46.34%)
	4~5권	85명(21.95%)
책을 구하는 경로	6권 이상	19명(4.88%)
	공공도서관	194명(50.00%)
	서점	55명(14.29%)
	인터넷서점	83명(21.43%)
	전자책	39명(10.00%)
주로 읽는 주제 분야	기타	16명(4.29%)
	문학	170명(43.84%)
	자기계발	69명(17.81%)
	경제/금융	16명(4.11%)
	역사/인문	48명(12.33%)
	예술/취미	37명(9.59%)
	과학/기술	21명(5.48%)
기타	26명(6.85%)	

〈표 4〉 독서량 및 독서 성향

항목	세부 질문	응답자 수(비율)
책을 읽는 이유	지식 습득	96명(24.69%)
	스트레스 해소	81명(20.99%)
	자기계발	86명(22.22%)

#### 4.3 공공도서관 이용현황

천안시 공공도서관 이용은 두정도서관(26.09%)과 중앙도서관(18.84%)을 중심으로 한 중심 생활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성거·아우내도서관 등 외곽 지역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여 공간적 서비스 편중이 뚜렷하다. 기타 응

답에서 나타난 물리적 접근성 제약과 도서 구매 및 학교도서관 등의 대체 경로 존재는 도서관 이용이 접근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방증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이용 밀집도가 높은 거점 도서관에 자원을 전략적으로 우선 배분하되, 외곽 지역의 서비스 격차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생활권별 소규모 거점화, 순회도서관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비이용자 흡수를 위해 온라인 대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체재와의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도서관 이용 빈도는 주 1회 이상 상시 이용자가 49.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견고한 상시 이용 기반(Core User)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월 1~2회 이용층 역시 37.25%로 상당 수준 존재하며, 이는 도서관이 일상적 공간으로 완전히 내재화되지 않은 잠재적 충성 고객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운영 전략은 이들 간헐적 이용층의 방문 주기를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테마형 큐레이션, 정기 독서 거버넌스, 월간 프로그램 패키지 등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비이용자 유입을 위해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와 생활 밀착형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용 목적 분석 결과, 전통적 기능인 독서(36.46%)가 여전히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28.12%), 프로그램 참여(11.46%), 학습(9.38%), 휴식(8.33%) 등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여 기능적 복합화(Multi-functionalization)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 교육(4.17%) 등 가족 단위 수요도 확인된다. 이는 도서관 인프라가 단순 열람 중심에서 탈피해 대출·상호

대차 서비스의 고도화, 문화·교육 콘텐츠의 질적 다변화를 동시에 수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습과 체류, 휴식 목적이 혼재하는 다층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음 관리, 동선 분리, 가변적 좌석 배치, 체류 지원 시설 확충 등 공간 컨버전스(Convergence)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집행해야 한다(〈표 5〉 참조).

〈표 5〉 공공도서관 이용현황

항목	세부 질문	응답자 수(비율)
주로 이용하는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73명(18.84%)
	성거도서관	11명(2.90%)
	쌍용도서관	39명(10.14%)
	아우내도서관	6명(1.45%)
	도솔도서관	39명(10.14%)
	두정도서관	101명(26.09%)
	신방도서관	45명(11.59%)
	청수도서관	34명(8.70%)
	직산도서관	22명(5.80%)
	기타	17명(4.35%)
도서관 이용 빈도	주 1회 이상	190명(49.02%)
	월 1~2회	144명(37.25%)
	분기별 1~2회	30명(7.84%)
	거의 이용하지 않음	23명(5.88%)
도서관 이용 목적	독서	141명(36.46%)
	자녀 교육	16명(4.17%)
	공부	36명(9.38%)
	프로그램 참여	44명(11.46%)
	휴식	32명(8.33%)
	서비스(대출, 상호대차 등) 이용	109명(28.12%)
	기타	9명(2.08%)

#### 4.4 독서프로그램 경험현황

##### 4.4.1 독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독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는 190명(49.02%), 비참여자는 197명(50.98%)

〈표 6〉 독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독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예	190명(49.02%)	1.51 (2점 기준)	0.505
아니오	197명(50.98%)		

으로 나타나 참여와 비참여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다. 평균은 1.51(표준편차 0.505)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참여 수준은 중간 이하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참여 집단이 절반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이용 접근성 개선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연령·흥미기반의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여 지속적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4.2 독서문화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와 참여 유형

프로그램 정보를 얻은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홈페이지(48.00%)와 SNS(36.00%)가 주요 정보 획득 채널로 나타났으며, 현수막·게시물(12.00%)과 지인 추천(4.00%)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기타 경로 응답은 확인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와 참여 유형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RQ2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분석 결과, 정보 획득 경로는 홈페이지와 SNS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참여 유형은 작가 강연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응답자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온라인 정보 채널을 통해 인지하고, 비교적 접근 부담이 낮은 강연형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결과를 곧바로 특정 유형의 확대 필요성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재 참여 경험이 특정 정보 채널과 프로그램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

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표 7〉 참조).

〈표 7〉 독서문화프로그램 정보 획득 경로와 참여 유형

항목	세부 질문	응답자 수(비율)
프로그램 정보를 얻은 경로	현수막, 게시물 등 안내문	46명(12.00%)
	홈페이지	186명(48.00%)
	SNS	139명(36.00%)
	지인	16명(4.00%)
	기타	0명(0.00%)
참여했던 프로그램 종류	독서토론	16명(4.00%)
	작가 강연	248명(64.00%)
	독서캠프	0명(0.00%)
	책놀이	16명(4.00%)
	기타	107명(28.00%)
프로그램 참여 목적	독서토론	16명(4.00%)
	작가 강연	248명(64.00%)
	독서캠프	0명(0.00%)
	책놀이	16명(4.00%)
	기타	107명(28.00%)

#### 4.4.3 프로그램을 통한 목적 달성 정도 및 만족도

프로그램 목적 달성도(92% 이상 긍정)와 만족도(100% 긍정)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확고한 신뢰가 확인되었다. 부정적 평가가 전무한 만큼 현재의 우수한 운영 기조를 유지·강화하되, 이러한 성과가 제한된 참여자 집단에 머물지 않도록 접근성 개선, 홍보 채널 다변화, 프로그램 외연 확장을 통해 잠재적 이용자층으로 성과를 확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표 8〉 참조).

〈표 8〉 프로그램을 통한 목적 달성 정도 및 만족도

분류	전혀 달성 되지 않음	거의 달성 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달성됨	매우 잘 달성됨	평균	STD.
목적 달성 정도	0 명 0.00%	0 명 0.00%	31 명 8.00%	248 명 64.00%	108 명 28.00%	4.20	0.57
만족도	0 명 0.00%	0 명 0.00%	0 명 0.00%	201 명 52.00%	186 명 48.00%	4.48	0.50

#### 4.4.4 만족의 주요 이유

만족의 주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제가 흥미로웠음”이 34.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만족이 콘텐츠의 흥미성과 직접적으로 연동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구성”(22.00%)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지원 및 안내”(16.00%)와 “강사의 전문성”(16.00%)도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하여 운영 지원과 전문성 역시 중요한 만족 요인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반면 “일정과 장소의 적절성”(12.00%)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프로그램 기획에서 무엇보다 주제 선정과 콘텐츠 구성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강사 전문성 확보와 안내·운영의 체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만족 수준을 지속하는 핵심 조건임을 의미한다(〈표 9〉 참조).

〈표 9〉 만족의 주요 이유

만족의 주요 이유	응답자 수(비율)
강사의 전문성이 높았음	62명(16.00%)
주제가 흥미로웠음	131명(34.00%)
일정과 장소가 적절했음	46명(12.00%)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85명(22.00%)
도서관의 안내·지원이 충분했음	63명(16.00%)

#### 4.4.5 해당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해당 프로그램의 재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재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매우 있음’ 52%, ‘어느 정도 있음’ 44%), 평균 역시 4.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1명(4.00%)에 그쳐 재참여 의향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이 높은 충성도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현재의 운영 품질을 유지·고도화하는 동시에 재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연속형·심화형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표 10〉 참조).

#### 4.4.6 프로그램 참여 후 도서 대출 경험

프로그램 참여 후 도서 대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도서 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니오’(12%)와 ‘잘 모르겠음’(8%)을 합한 비율은 20%에 그쳐, 대출 경험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도서 이용 연계 효과는 3점 기준 평균 2.68점으로 확인되어, 프로그램 참여가 도서 대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순한 참여 경험을 넘어 도서관 핵심 서비스인 자료 이용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

〈표 10〉 해당 프로그램 재참여 의향

분류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잘 모르겠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있음	평균	STD.
재참여 의향	0 명 0.00%	1 명 4.00%	0 명 0.00%	170 명 44.00%	201 명 52.00%	4.44	0.70

〈표 11〉 프로그램 참여 후 도서 대출 경험

프로그램 참여 후 도서 대출 경험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예	310명(80.00%)	2.68 (3점척도)	0.67
아니오	46명(12.00%)		
잘 모르겠음	31명(8.00%)		

되며, 향후에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추천도서 목록 제공, 주제도서 전시·큐레이션,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후속 읽기 과제 등 도서 이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4.7 참여하지 않은 이유

독서문화프로그램 비참여의 주된 원인으로 '시간대 불일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부족'(26.92%)과 '관심 부족'(15.3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비참여 현상이 단순한 흥미 결여를 넘어 운영 시간 및 홍보 접근성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부재가 기타 의견으로 제기된 점은 특정 계층에 편중된 기획이 구조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한 정보 도달률 개선과 함께, 성인 맞춤형 콘텐츠 확충 및 야간·주말 등 유연한 시간대 편성을 통해 물리적·구조적 참여 제약을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표 12〉 참조).

〈표 12〉 참여하지 않은 이유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응답자 수(비율)
정보를 잘 모름	104명(26.92%)
시간대 불일치	179명(46.15%)
관심없음	60명(15.38%)
기타	45명(11.54%)

4.4.8 향후 참여 의향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예'가 5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다름' 역시 42.31%로 확인되어 조건부 참여층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의향은 '예'가 53.85%, '상황에 따라 다름'이 42.31%, '아니오'가 3.85%로 나타났다. 본 문항은 참여 여부에 대한 확정적 의사와 조건부 의사를 구분하기 위한 문항이므로 평균값을 산출하지 않고 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정적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조건부 참여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향후 운영 전략에서는 참여 의향 자체의 크기뿐 아니라, 조건부 참여층을 실제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

〈표 13〉 향후 참여 의향

향후 참여 의향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예	208명(53.85%)	2.50 (3점 기준)	0.57
아니오	15명(3.85%)		
상황에 따라 다름	164명(42.31%)		

대, 대상 적합성, 프로그램 형식,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이 일정 수준의 잠재 수요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참여 의사가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획을 전제로 하되, 시간대 · 형식(대면/비대면) · 난이도 · 대상 적합성 등 참여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조건부 참여층을 실제 참여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4.5 독서프로그램 수요조사

##### 4.5.1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작가 강연'이 56.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콘텐츠 중심형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체험'(21.57%), '기타'(9.80%), '독서토론'(7.84%) 순으로 나타나 강연형 수요가 우세하되, 가족 동반형 참여와 다양한 대안적 형식에 대한 요구도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강연형 콘텐츠의 질과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대면 · 소규모 · 참여 부담 완화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유형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표 14〉 참조).

〈표 14〉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유형	응답자 수(비율)
독서토론	30명(7.84%)
작가 강연	220명(56.86%)
가족 체험	83명(21.57%)
시니어 독서회	15명(3.92%)
기타	38명(9.80%)

##### 4.5.2 프로그램별 개설이 필요한 정도

프로그램별 개설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영역에서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평균 3.902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토론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다. 또한 '1인 1책 쓰기'와 '한 줄 글귀'와 같은 표현 · 기록 활동 연계 프로그램도 비교적 높은 선호를 보였으며, '자서전 프로그램'은 평균 3.373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모든 항목의 평균이 5점 기준 3.3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필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독서문화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서 토론형 프로그램을 핵심 축으로 강화하는 한편, 글쓰기 · 기록 활동을 결합한 콘텐츠를 확대하여 독서 경험이 표현과 실천으로 확장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15〉 참조).

〈표 15〉 읽고 쓰고 토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1인 1책 쓰기, 나도 작가되기	15 명 3.92%	8 명 1.96%	159 명 41.18%	137 명 35.29%	68 명 17.65%	3.608	0.94
자서전 프로그램	15 명 3.92%	53 명 13.73%	137 명 35.29%	137 명 35.29%	45 명 11.76%	3.373	0.999
한 줄 글귀	23 명 5.88%	23 명 5.88%	121 명 31.37%	144 명 37.25%	76 명 19.61%	3.588	1.062
독서토론 프로그램	0 명 0.00%	23 명 5.88%	91 명 23.53%	174 명 45.10%	99 명 25.49%	3.902	0.855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수요 분석 결과, ‘주민 참여 인문학’(평균 4.02점)과 ‘독서마라톤대회’(평균 3.94점)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기표현 및 장기 지속형 활동에 대한 견고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반면 ‘독후감 공모전’과 ‘낭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고 선호 편차가 크게 관찰되어 대상별 세분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 포트폴리오는 인문학 중심의 지속참여형 모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단기 프로그램과의 전략적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낭독 프로그램은 타깃 집단별 맞춤형 기획으로 수요 적합도를 제고하고, 공모형 프로그램은 보상 체계 등 동기부여 기제를 강화

하여 참여 장벽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표 16〉 참조).

‘독서친화지표 개발 등 독서역량 제고’ 영역의 개설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별 독서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은 평균 4.00으로 높게 나타나 강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는 독서역량을 개인 특성에 맞춰 처방·연계하는 ‘진단-지원’ 체계가 시민 요구 수준에서 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책 낭독경연(역할극) 대회는 평균 3.07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수용도가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경연·경쟁 중심 프

〈표 16〉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주민참여 인문학 프로그램	0 명 0.00%	15 명 3.92%	91 명 23.53%	152 명 39.22%	129 명 33.33%	4.02	0.86
낭독 프로그램	0 명 0.00%	61 명 15.69%	137 명 35.29%	106 명 27.45%	83 명 21.57%	3.549	1.006
독후감 공모전	8 명 1.96%	38 명 9.80%	159 명 29.41%	68 명 41.18%	9 명 <sup>1)</sup> 17.65%	3.627	0.958
독서마라톤대회	0 명 0.00%	23 명 5.88%	91 명 23.53%	159 명 41.18%	114 명 29.41%	3.941	0.881

〈표 17〉 독서친화지표 개발 등 독서역량 제고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개인별 독서역량 진단을 통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0 명 0.00%	15 명 3.92%	76 명 19.61%	190 명 49.02%	106 명 27.45%	4	0.8
책 낭독경연(역할극) 대회	15 명 3.92%	99 명 25.49%	152 명 39.22%	83 명 21.57%	38 명 9.80%	3.078	1.017

로그그램은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집단별 적합성을 고려해 보완하되, 종합적으로는 단순 이벤트성 운영보다 개인의 성장과 독서 역량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질 중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독서학교 운영 지원’ 영역의 개설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 항목의 평균이 3.8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 특히 인문독서 아카데미,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 강연,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모두 평균 3.9 이상으로 나타나 인문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선호가 증명되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평균 3.8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필요함 이상” 응답이 69.3%를 차

지해 접근성 보완책으로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독서학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동형 프로그램의 장소·대상별 맞춤화 전략과 함께 지역 문화시설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장하여 지역 문화자원과 결합된 형태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표 18〉 참조).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영역의 개설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평균 4.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필요함” 응답 비율도 50.98%로 최상위를 차지하였다.

〈표 18〉 문화기반시설 활용 인문독서학교 운영 지원

분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인문독서 아카데미	0 명 0.00%	15 명 3.92%	106 명 27.45%	167 명 43.14%	99 명 25.49%	3.902	0.831
길 위의 인문학	0 명 0.00%	15 명 3.92%	114 명 29.41%	152 명 39.22%	106 명 27.45%	3.902	0.855
인문학 강연	0 명 0.00%	23 명 5.88%	106 명 27.45%	121 명 31.37%	137 명 35.29%	3.961	0.937
찾아가는 도서관	8 명 1.96%	30 명 7.84%	114 명 29.41%	114 명 29.41%	121 명 31.37%	3.804	1.04
지역연계 인문독서 프로그램	0 명 0.00%	30 명 7.84%	83 명 21.57%	167 명 43.14%	106 명 27.45%	3.902	0.9

또한 전 연령대 프로그램에서 “필요 이상” 응답이 80%를 상회하여, 생애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고도화가 요구되며, 청년 및 성인층에 대해서는 자기개발 수요와 공동체 기반 독서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년층의 경우 독서 복지 관점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독서 멘토 활동, 문해력 향상 지원 등을 병행하는 방식의 맞춤형 설계가 요청된다(〈표 19〉 참조).

#### 4.5.3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독서 프로그램 참여 의향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독서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3.255(표준편차 1.309)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참여 성향이 확인

되었다. 긍정 응답은 50.98%로 절반을 상회한 반면 부정 응답도 29.42%로 나타나 선호가 분화되어 있으며, 큰 표준편차는 세대·관심사·생활권 등 하위 집단에 따라 수용도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천안의 고유 자원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이를 단일 패키지 제시하기보다 세대별·흥미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거부 반응이 약 30%에 근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참여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가치와 참여 이점을 환기하는 홍보·인식 개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표 20〉 참조).

#### 4.5.4 희망하는 천안시 특성 반영 독서문화 프로그램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응답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수렴하였다. 첫째, 지역성과

〈표 19〉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지원

분류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유아(예비맘의 첫 번째 연결고리 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 등)	0 명 0.00%	23 명 5.88%	38 명 9.80%	167 명 43.14%	159 명 41.18%	4.196	0.849
어린이(아동독서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독서교실 등)	8 명 1.96%	8 명 1.96%	30 명 7.84%	144 명 37.25%	197 명 50.98%	4.333	0.864
청소년(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독서토론 아카데미 등)	0 명 0.00%	23 명 5.88%	53 명 13.73%	167 명 43.14%	144 명 37.25%	4.118	0.864
청년(독서를 통한 자기개발과 진로 찾기, 필독서 추천 등)	0 명 0.00%	23 명 5.88%	23 명 5.88%	205 명 52.94%	137 명 35.29%	4.176	0.793
성인(독서동아리 등 독서 관련 연계활동 유도프로그램)	8 명 1.96%	30 명 7.84%	30 명 7.84%	159 명 41.18%	159 명 41.18%	4.118	0.993
노인(어르신인문학강좌, 독서벤치활동 등)	8 명 1.96%	8 명 1.96%	46 명 11.76%	212 명 54.90%	114 명 29.41%	4.078	0.821

〈표 20〉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독서 프로그램 참여 의향

분류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렇	매우 그렇	평균	STD.
프로그램 참여 여부	53 명 13.73%	61 명 15.69%	76 명 19.61%	129 명 33.33%	68 명 17.65%	3,255	1.309

상징 자원을 활용한 독서문화 기획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독립운동, 이순신 등 지역사와 연결되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이는 천안의 역사·기억 자원을 독서 콘텐츠로 재구성할 경우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흥미와 참여를 유의미하게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 접근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응답이 나타나 이동형 도서관과 같은 전달 방식의 다변화, 세대·계층별 맞춤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타 분야와 융합된 인문예술형 독서활동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어 문학·예술 연계 프로그램, '독서마음'형 커뮤니티 활동 등 체험·관계 기반 독서문화 모델이 유망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도시 홍보와 결합한 관광·브랜딩형 독서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천안 알리기'와 로컬 브랜딩 기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유연성과 통합적 설계를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나타나, 타 지역 사례의 참고와 주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의 기획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 4.5.5 향후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중점 운영 방향

향후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중점 운영 방향을 분석한 결과, '정서 치유·심리 안정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34.65%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상적 정서 지원 수요가 두드러졌다.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과 '정보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각각 17.82%로 동일하게 나타나 가족·세대 통합과 사회적 배려를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천안 지역 문화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14.85%)과 '지역민 주도형 시민 참여 프로그램'(12.87%)은 지역성과 시민 주도성을 중시하는 운영 방향이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치유 콘텐츠를 확대하되, 세대 통합·취약계층 포용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천안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역연계형 콘텐츠와 시민참여 기반 운영체계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표 21〉 참조).

〈표 21〉 향후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중점 운영 방향

향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향	응답자 수(비율)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예: 부모-자녀, 청년-노년)	69명(17.82%)
천안 지역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57명(14.85%)
정서 치유, 심리 안정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134명(34.65%)
정보취약계층(노년층, 장애인 등) 대상 프로그램	69명(17.82%)
지역민 주도형 시민 참여 프로그램	50명(12.87%)
기타	8명(1.98%)

#### 4.5.6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시기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설 시기를 분석한 결

과, '연중 무관'이 47.06%로 가장 높아 상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기간'과 '계절별'은 각각 21.57%로 동일하게 나타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테마형 운영에 대한 선호도도 확인되었다. 반면 '학기 중'은 9.80%로 가장 낮아 정규 교육과정과 병행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중 상시 운영이 가능한 유연한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되, 방학·계절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학기 중 운영은 방과 후 및 주말 시간대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표 22〉 참조).

#### 4.5.7 독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

독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항목의 평균이 모

두 중립 수준(3점)을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 필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공간 조성'(평균 4.333),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시설 지원'(평균 4.314), '학교 독서환경 조성'(평균 4.235), '지역사회 함께 읽는 기반 구축'(평균 4.098)의 평균이 높아, 학교 기반 독서환경과 지역 단위 기반 및 공간·시설 인프라에 대한 우선 지원 요구가 뚜렷하였다. 반면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교정시설 독서프로그램 지원'(평균 3.451), '이동도서관 조성'(평균 3.569), '책 읽는 벽면문화 만들기'(평균 3.588)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설계에서는 학교·지역 기반의 독서환경 개선과 공간·시설 확충을 핵심 축으로 우선 배치하되, 이동형·특수대상·캠페인형 사업은 대상 적합성과 운영 조건을 정교화한 보완 과제로 단계적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23〉 참조).

〈표 22〉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시기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개설 시기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학기 중	38명(9.80%)	3.059	1.047
방학 기간	84명(21.57%)		
계절별	84명(21.57%)		
연중 무관	182명(47.06%)		

〈표 23〉 독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독서동아리·독서공동체 지원	8명 1.96%	8명 1.96%	68명 17.65%	190명 49.02%	114명 29.41%	4.02	0.860
지역사회의 책 읽는 기반 구축	8명 1.96%	8명 1.96%	68명 17.65%	159명 41.18%	144명 37.25%	4.10	0.900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행사 지원	0명 0.00%	0명 0.00%	53명 13.73%	159명 41.18%	175명 45.10%	4.31	0.707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가정에서 책 읽고 토론하는 문화 확산	0 명 0.00%	5 명 3.92%	84 명 21.57%	152 명 39.22%	137 명 35.29%	4.06	0.858
일상에서 누리는 독서문화 공간조성	0 명 0.00%	0 명 0.00%	46 명 11.76%	167 명 43.14%	175 명 45.10%	4.33	0.683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0 명 0.00%	8 명 1.96%	114 명 29.41%	129 명 33.33%	136 명 35.29%	4.02	0.860
이동도서관 조성	0 명 0.00%	61 명 15.69%	121 명 31.37%	129 명 33.33%	76 명 19.61%	3.57	0.985
우수도서 지원	8 명 1.96%	15 명 3.92%	84 명 21.57%	182 명 47.06%	99 명 25.49%	3.90	0.900
문화기반시설 활용	8 명 1.96%	0 명 0.00%	84 명 21.57%	190 명 49.02%	106 명 27.45%	4.00	0.825
인문독서학교 운영 지원	15 명 3.92%	15 명 3.92%	68 명 17.65%	190 명 49.02%	99 명 25.49%	3.88	0.973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0 명 0.00%	23 명 5.88%	68 명 17.65%	175 명 45.10%	121 명 31.37%	4.02	0.860
책문화 크리에이터 지원	23 명 5.88%	15 명 3.92%	144 명 37.25%	99 명 25.49%	106 명 27.45%	3.65	1.110
독서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23 명 5.88%	30 명 7.84%	121 명 31.37%	141 명 29.41%	99 명 25.49%	3.61	1.133
기록과 보상을 통한 독서 습관화	15 명 3.92%	8 명 1.96%	106 명 27.45%	121 명 31.37%	137 명 35.29%	3.92	1.036
학교 독서환경 조성	0 명 0.00%	23 명 5.88%	46 명 11.76%	137 명 35.29%	182 명 47.06%	4.24	0.885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지원	15 명 3.92%	8 명 1.96%	83 명 21.57%	129 명 33.33%	152 명 39.22%	4.02	1.029
비독자 전환 프로그램	8 명 1.96%	46 명 11.76%	106 명 27.45%	144 명 37.25%	83 명 21.57%	3.65	1.016
50+(신중년) 등 참여독서 체계 조성	0 명 0.00%	15 명 3.92%	99 명 25.49%	152 명 39.22%	121 명 31.37%	3.98	0.86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독서복지 강화성	8 명 1.96%	0 명 0.00%	99 명 25.49%	144 명 37.25%	137 명 35.29%	4.04	0.894
책 읽는 병영문화 만들기	15 명 3.92%	46 명 11.76%	121 명 31.37%	106 명 27.45%	99 명 25.49%	3.59	1.117
교정시설 독서 프로그램 지원	30 명 7.84%	38 명 9.80%	114 명 33.33%	129 명 27.45%	91 명 21.57%	3.45	1.172
독서정책 협력체계 (거버넌스) 구축	15 명 3.92%	38 명 9.80%	114 명 29.41%	129 명 33.33%	91 명 23.53%	3.63	1.076
인공지능(AI) 기반 참여형 독서 플랫폼 개발 운영	8 명 1.96%	23 명 5.88%	106 명 27.45%	182 명 47.06%	68 명 17.65%	3.75	0.896

분류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STD.
디지털북 콘텐츠 확산 지원	23 명 5.88%	23 명 5.88%	106 명 27.45%	144 명 37.25%	91 명 23.53%	3.67	1.089
독서가치 및 효과 연구 분석 강화	23 명 5.88%	23 명 5.88%	91 명 23.53%	159 명 41.18%	91 명 23.53%	3.71	1.082
독자개발 및 독서실태조사	15 명 3.92%	30 명 7.84%	83 명 21.57%	152 명 39.22%	106 명 27.45%	3.78	1.064
독서친화지표 개발 등 독서역량 제고	15 명 3.92%	15 명 3.92%	106 명 27.45%	152 명 39.22%	99 명 25.49%	3.78	1.006

#### 4.5.8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성이 중요한 시정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계가 중요한 시정 분야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교육'이 24.60%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확산이 정책적으로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가족'(17.65%), '복지일반'(15.51%), '노인/장애인/세대'(11.23%) 순으로 나타나, 돌봄과 복지 영역과 결합한 독서문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률, 교통안전, 환경위생 등 기타 공공정책 분야는 3~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독서문화 정책을 강화하되, 가족·복지 분야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안전·환경 등은 직접 사업보다는 시민역량 강화와 정보이해 증진을 목표로 한 간접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적절하다(〈표 24〉 참조).

〈표 24〉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성이  
중요한 시정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성이 중요한 시정	응답자 수(비율)
복지일반	60명(15.51%)
아동/청소년/교육	95명(24.60%)
여성/가족	68명(17.65%)
노인/장애인/세금	43명(11.23%)
도시/건축/주택/부동산	33명(8.56%)
법률	12명(3.21%)
교통/안전	23명(5.88%)
환경/위생	12명(3.21%)

#### 4.5.9 흥미 있는 천안 지역 키워드

흥미 있는 천안 지역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응답은 역사·기억 자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유관순 열사·3·1운동'(22.35%)과 '독립운동·민족정신'(21.1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사통팔달 교통·물류 중심도시'와 '천안 호두과자'(각 11.18%), '천안흥타령춤축제'(10.00%), '천안삼거리'(9.41%)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성환 배'(3.53%)와 '병천순대'(4.12%)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기타 의견으로 '천안 출신 작가'가 제시되어 지역 인물·문학자원에 대한 잠재 수요도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천안형 지역특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독립운동·유관순 관련 콘텐츠를 핵심 축으로 설정하되, 교통·축제·특산물 등 상징 자원을 보완 축으로 결합하는 방향이 타당함을 시사한다(〈표 25〉 참조).

〈표 25〉 흥미 있는 천안 지역 키워드

흥미 있는 천안 지역 키워드	응답자 수(비율)
독립운동, 민족정신	82명(21.18%)
유관순 열사, 3·1운동	87명(22.35%)
천안삼거리	36명(9.41%)
사통팔달, 교통과 물류의 중심도시	43명(11.18%)
천안 호두과자	43명(11.18%)
천안 성환 배기타	14명(3.53%)
병천순대	16명(4.12%)
천안흥타령춤축제	39명(10.00%)
도농복합도시	25명(6.47%)

기타의견: 천안 출신 작가

## 5. 논의

본 연구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수요와 참여·성과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천안의 지역자원과 결합 가능한 지역특화 운영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응답집단은 전반적으로 독서·도서관 이용에 친화적이었으나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비참여가 유사하게 나타나 '잠재 수요'가 '실제 참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참여의 핵심 요인으로 시간대 불일치와 정보 부족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은, 프로그램 성과가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니라 전달체계(운영 시간·정보 도달·참여 부담)의 설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참여 장애 요인과의 정합적이다(신영지 외, 2024). 동시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독서문화진흥이라는 공공목표와 결합할 때 정책적 정당성과 확장성이 강화된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조미아, 박승진, 2023), 본 연구는 천안 사례에서 '지역특화' 관점의 정책 전환을 위해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콘텐츠·전달체계·형평성·연계기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RQ1), 독서 실태 분석에서 독서 동기는 취미, 지식 습득, 자기계발, 정서 안정 등으로 다층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단일한 교육형 서비스로만 설계될 경우 시민의 복합적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서적 안정과 치유 기능에 대한 요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인지·정서·행동 및 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실증 연구와 접속하며(김명자, 박주현, 2023), 공공도서관이 정서지원형 독서 콘텐츠를 공공서비스의 일부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저독서/비독서 집단에서 '시간 부족'이 핵심 제약으로 확인된 결과는, 독서 참여가 개인의 태도보다 생활시간 구조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이용자 연구에서 시간 부족을 참여 저해의 핵심으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며(신영지 외, 2024), 독서 지원 정책이 '의지 고취' 중심의 캠페인보다 짧은 단위 참여, 루틴형 운영, 비대면 연계처럼 시간 장벽을 낮추는 설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둘째(RQ2), 도서관 이용 행태에서는 이용도서관이 일부 거점에 집중되고, 이용 목적이 독서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프로그램 참여·학습·휴식 등으로 다층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자료 접근 기관을 넘어 체류와 학습, 관계 형성을 포괄하는 생활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문화프로그램의 성과가 공간·운영·안내 체계와 결합될 때 강화된다는 선행논의와 연결된다(황금숙 외, 2008). 특히 프로그램 정보 획득이 홈페이지·SNS 중심으로 나타난 반면, 비참여 이유에서 정보 부족이 핵심으로 제시된 점은 '디지털 홍보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달 범위·메시지 설계·채널 결합(오프라인 보완)이 참여 전환에 결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용자 활성화가 단독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체계(안내·지원·연계) 속에서 설계될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곽승진 외, 2020).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새 프로그램 추가'보다 야간·주말·상시 운영 등 시간대 재설계와, 온라인 홍보의 고도화 및 비디지털 이용자를 포괄하는 안내 체계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RQ3), 프로그램 성과 측면에서 참여자의 목적 달성도와 만족도, 재참여 의향이 매우 높고 참여 후 대출 경험도 높게 나타난 점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행사 참여'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 핵심 기능인 자료 이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족의 주요 이유가 흥미로운 주제, 체계적 구성, 강사 전문성, 안내·지원 등 콘텐츠 품질과 운영 역량에 집중된 결과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성과가 이벤트성 요소보다 콘텐츠 설계와 운영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선행연구의 논지와 일치한다(황금숙 외, 2008; 심효정, 2023). 또한 공공도서관 만족이 이용 및 추천 의도와 연결된다는 실증 결과를 고려하면(Noh & Chang, 2020), 천안 사례에서 확인된 높은 만족과 재참여 의향은 중앙

기적으로 도서관 이용 확산과 긍정적 구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 정책 과제는 '만족 유지'와 '참여 확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품질을 기반으로 비참여 집단을 참여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 조정(시간대·형식·접근 경로)을 결합하는 데 있다.

넷째(RQ4), 향후 참여 의향에서 '예'와 함께 '상황에 따라 다름'이 크게 나타난 결과는 조건부 참여층이 두텁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프로그램의 잠재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참여 조건(시간, 방식, 부담)이 충족되어야 실제 참여로 전환된다는 의미이며, 참여 확대의 초점이 '추가 공급'보다 '조건 설계'에 놓여야 함을 시사한다(신영지 외, 2024). 또한 선호 유형은 작가 강연이 우세했으나, 프로그램별 필요도에서는 토론·쓰기·주민참여형 인문 프로그램, 맞춤형 독서역량 지원 등 과정형 프로그램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연형 콘텐츠가 유입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나, 지속 참여와 역량 내면화를 위해서는 토론·기록·실천형을 결합한 단계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은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단발성 행사에서 과정 중심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 연구의 지향과도 일치한다(심효정, 2023; 심효정, 조상은, 2024). 결과적으로 운영전략은 '강연(진입)-토론·쓰기(심화)-동아리·공동체(정착)'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참여 부담을 낮추는 하이브리드 운영과 상시 운영 체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RQ5), 지역특화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이며 응답 분산도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특화가 보편적 호응을 전제할 수 없는 '세분화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지역 키

위드에서 유관순·3·1운동과 독립운동·민족정신이 최상위로 확인되어, 천안의 역사·기억 자원이 지역특화 독서문화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지역특화 전략이 지속가능하려면 자원(콘텐츠)-서비스(프로그램)-네트워크(연계)-성과(지속성)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에 비추어(Ro et al., 2025), 천안형 지역특화는 '역사·기억' 테마를 핵심 축으로 두되 축제·교통거점·특산물 등 상징 자원을 결합한 복합형(읽기-체험-탐방-전시)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생활권·기관 간 격차가 참여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 단위 격차 분석 연구가 제기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므로(오선경, 2022), 지역특화 전략도 거점 집중이 아니라 권역형 분산 운영과 연계 기반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독서문화정책을 교육·복지·지역문화와 연계하는 방향은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공공성·형평성·지속성 지향과도 부합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종합하면, 본 연구의 설문 결과는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전략이 (1) 다층적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포트폴리오, (2) 시간·정보 장벽을 낮추는 전달체계 재설계, (3) 콘텐츠 품질과 운영 전문성의 확산, (4) 단계형 프로그램 구조(진입-심화-정착), (5) 역사·기억 자원 중심의 지역특화와 보완 자원의 결합, (6) 권역형 분산 운영과 연계 기반(학교·취약계층 포함)의 실행체계라는 축에서 동시에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만족과 연계 효과가 확인된 상황에서 비참여가 상당 수준 유지된다는 점은, 정책의 초점이 프로그램

의 추가 생산이 아니라 참여 전환 조건을 설계하는 운영 전략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생활권·디지털 접근성·가구 특성 등 참여 조건 변인을 보다 정밀하게 포함하여 참여 전환 요인을 모형화하고, 권역형 분산 및 하이브리드 전달체계가 참여·만족·대출 연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수요, 참여 장벽, 성과(만족·재참여·대출연계), 그리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전략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독서 친화성이 높고 도서관을 주요한 자료 획득 경로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는 참여·비참여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요의 존재'와 '참여의 실현' 사이의 간극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참여자의 목적 달성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참여 후 대출 경험도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이 도서관 핵심 서비스(자료 이용)로의 연계 효과를 실제로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핵심 과제는 프로그램의 질적 정당성 부족이라기보다 시간대·정보 접근·참여 부담 등 참여 전환을 가로막는 조건을 개선하고, 검증된 운영 품질을 더 넓은 이용자 집단으로 확산시키는 전달체계의 재설계에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운영·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은 '콘텐츠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해야 한다. 비참여의 핵심 이유가 시간대 불일치와 정보 부족으로 확인된 만큼, 야간·주말·상시 운영 등 시간대 다변화와 함께 온라인(홈페이지·SNS) 홍보를 고도화하되, 비디지털 이용자를 포괄하는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채널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조건부 참여층이 두텁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접근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참여 전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는 '유입-심화-정착'의 단계형 구조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호 유형에서 작가 강연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진입 단계에서 강연형 콘텐츠가 효과적임을 시사하지만, 프로그램 필요도에서는 토론·쓰기·주민참여형 인문 프로그램과 맞춤형 독서역량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연형(유입)을 기반으로 토론·기록형(심화)과 동아리·공동체형(정착)을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짧은 모듈형 운영과 하이브리드 방식(대면+비대면)을 결합하여 참여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생활권 형평성을 고려한 권역형 분산 운영이 필요하다. 이용이 특정 도서관에 집중되고 외곽 지역 이용률이 낮게 나타난 점은, 권역별 프로그램 배치와 도서관 간 공동 기획·순회 운영, 생활거점(복지시설·마을공간 등) 연계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동형 서비스는 단독 해법이라기보다 대상·장소별 맞춤형과 결합될 때 효과가 커지는 보완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천안형 지역특화 전략은 '역사·기억

자원'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되 복합형 콘텐츠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 키워드에서 유관순·독립운동 관련 항목이 상위로 나타난 결과는 지역특화의 대표 테마를 제공한다. 다만 지역특화 참여 의향이 중간 수준이며 분산이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단일 메시지로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사·기억 기반 독서콘텐츠를 중심축으로 하되 축제·특산물·교통거점 등 지역 상징 자원을 결합한 복합형(읽기-체험-탐방-전시)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참여 부담과 난이도는 대상별로 차등화하는 운영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책 지원은 '핵심 기반'과 '보완 사업'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설문에서 정책·지원 필요 인식이 전반적으로 중립 이상으로 확인된 만큼, 학교·지역기반의 독서환경 조성,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독서복지 강화, 독서공동체 지원과 같은 공공성 중심 과제를 핵심 기반으로 설정하고, 캠페인형·이벤트형 사업은 지역·대상 적합성을 정교화한 보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기반이라는 특성상 표본이 특정 성별·연령·직업 집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참여 집단의 맥락(가구구성, 돌봄 부담, 디지털 접근성, 이동성 등)을 정밀하게 분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전환 조건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가해 모호화하고, 권역형 분산 운영과 하이브리드 전달체계가 참여율, 만족도, 대출 연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검증함으로써 천안형 지역특화 운영전략의 실증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곽승진, 노영희, 오상희, 김정택, 노지윤 (2020). 세종시립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4), 27-60.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027>
- 곽승진, 노영희, 장인호, 이석형, 강봉숙, 심효정 (2024). 천안시 거점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정책제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5(3), 113-138.  
<https://doi.org/10.16881/jss.2024.07.35.3.113>
- 김명자, 박주현 (2023). REBT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지·정서·행동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25-54.  
<https://doi.org/10.16981/kliss.54.4.202312.25>
-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
- 신영지, 이은주, 윤유라 (2024).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285-312.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285>
- 심효정 (2023).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현황분석 및 정책 제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  
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4), 125-14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4.125>
- 심효정, 조상은 (2024).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독서정책 방향 연구: 경기도 G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4), 199-226. <https://doi.org/10.4275/KSLIS.2024.58.4.199>
- 오선경 (2022).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현황 및 격차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215-239.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215>
- 장윤금, 이지수, 전경선, 이혜영 (2018). 병영도서관 이용 및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49(3), 241-261. <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
- 조미아, 곽승진 (2023).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기반한 공공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57(3), 191-21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191>
- 황금숙, 김수경, 박미영 (2008).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  
학회지*, 39(1), 219-244. <https://doi.org/10.16981/kliss.39.1.200803.219>
- Noh, Y. & Chang, I. (2020). A study on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public libraries on using  
and recommending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0(3), 69-85. <https://doi.org/10.5865/IJKCT.2020.10.3.069>
- Noh, Y., Kim, Y.-J., & Kwak, W. (2023). A study on defining communicat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3(3), 95-122. <https://doi.org/10.5865/IJKCT.2023.13.3.095>

Ro, J. Y., Noh, Y., & Chang, I. (2025). Evaluating and restructuring library specializ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pyeongchang county.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15(4), 123-144. <https://doi.org/10.5865/IJKCT.2025.15.4.12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Yunkeum, Lee, Jisu, Jeon, Kyungsun, & Lee, Hyeyoung (2018). A study on improving military library uses and reading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241-261. <https://doi.org/10.16981/kliss.49.3.201809.241>

Cho, Mi-Ah & Kwak, Seung-Jin (2023). A study on the reading program improvement plan of a public library based on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191-21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191>

Hoang, Gum-Sook, Kim, Soo-Kyoung, & Park, Mi-Young (2008). 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219-244. <https://doi.org/10.16981/kliss.39.1.200803.219>

Kim, Myungja & Park, Juhyeon (2023). The effect of REBT reading therapy program on peer relationships in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4), 25-54. <https://doi.org/10.16981/kliss.54.4.202312.25>

Kwak, SeungJin, Noh, Younghee, Chang, In-ho, Lee, Seok-Hyoung, Kang, Bongsuk, & Sim, Hyojung (2024).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id-to-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Cheonan City's central libraries and policy proposals. *Journal of Social Science*, 35(3), 113-138. <https://doi.org/10.16881/jss.2024.07.35.3.113>

Kwak, Seung-Jin, Noh, Younghee, Oh, Sanghee, Kim, Jung-Taek, & Ro, Ji-Youn (2020).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 and user activation plan of Sejong C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4), 27-60. <https://doi.org/10.3743/KOSIM.2020.37.4.02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Basic Pla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2019-2023)*.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The 4th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2024-2028)*.

Oh, Seon-Kyung (2022). A study on the status and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y in Chungcheongnam-do.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215-239.

<https://doi.org/10.16981/kliss.53.2.202206.215>

Shin, Youngji, Lee, Eun-Ju, & Youn, You-Ra (2024).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public library users in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3), 285-312.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285>

Sim, HyoJung & Cho, SangEun (2024). A study on the strategic reading policy direction to revitalize community reading culture: Focusing on G City, Gyeonggi-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4), 199-226.

<https://doi.org/10.4275/KSLIS.2024.58.4.199>

Sim, Hyo-Jung (2023). A study on the analysis of public library reading program operation status and policy proposal: Focusing on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dat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4), 125-14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3.34.4.125>

